

## 요2 : 13-22에 나타난 참성전(*ναός*) 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 신 주님의 의도 분석(구약의 *ἅγιος* 과 관련 하여)

강 대 군

Intuition: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참성전임을 계시하셨다.

목

차

- |  |  |
|--|--|
| 1. 서 론   | 2-3 <i>ναός</i> 로서 자신을 계시<br>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br>[부활사건 (19절) 및 구원사역<br>(3장 담고태모 사건)과 연관하<br>여] |
| 1-1도 입   |  |
| 2. 본 론   |  |
| 2-1 구약에 나타난 <i>ἅγιος</i> 의<br>의미                         | 3. 결 론   |
| 2-2 14절에 나타난 <i>ἅρον</i><br>과 21절에 나타난 <i>ναός</i><br>비교 |  |

### 서 론

#### 1-1. 도 입

<sup>1)</sup>요한복음은 다른 세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세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설명되어 있는 교리적인 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요한은 주로 에비온 (Ebion)과 씨린더스 (Cerinthus)의 무신론적인 모독설과 대항하여<sup>2)</sup> 그리스도의 신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

1) John Calvin, 신약성경주석, 요한복음 I, 성서교재 간행사.

2) Ibid, p. 20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공생애 중 최초의 큰 사건으로 성전혁신을 취급하고 있으나 다른 복음서들은 최후의 사건으로 본다. 이 사건이 대제사장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도화선의 구실을 하였고 끝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결말을 냥게 했다고 추측하게 한다.

요한이 이 사건을 이런 위치에 둔 까닭은 그의 전체 구성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며 예수의 공생애가 이와같이 극적으로 시발함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술하였다<sup>3)</sup>고 본다.

세례요한의 기사 이외에도 제 1장부터 5장까지의 기사에서 공관복음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찾아 볼수가<sup>4)</sup> 없는 것이다.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만 하더라도 “파는 사람들 (*Toὺς πωλοῦτας*), 상 (*τραπέζας*), 비둘기 (*περιστεράς*), 돈바꾸는 사람들 (*κολλυβιθῆταις*)”의 언어 이외에는 공관복음과 동류어는 거의없고 위의 단어들은 제외하면 성전혁신의 기사를 보고해 줄 길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때이나 마가복음의 상황은 예수님이 잘 알려져 있는 때 이므로 이 본문의 사건의 그 당시 모든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 도입 부분에서 요한복음의 짐필의도 및 형편을 고려해 보았다.

이 석의논문은 위의 형편에 비추어서 돌성전 (*ἅρον*)을 허시고 자신이 참성전 (*ναός*)임을 계시하신 주님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ἅγιος* 과 연계성을 살펴야 한다.

또한 *ἅγιος* *ἅρον* - *ναός* 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유월절 (*ἡ ἡρῷα, Πάσχα*) 절기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이 주님의 사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 본 론

#### 2-1. 구약에 나타난 *ἅγιος* 의 의미

*ἅγιος*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sup>5)</sup> Geerhardus Vos는

3) B.W.Bacon, *The Making of the New Testament*, London.n.d., p. 233.

4) P.Gardner-Smith, 사도요한과 공관복음, Cambridge, 1938, p. 23.

5) Vos. Geerhardus, *The self-Disclosure of Jesus*

“**קדש** 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 자신을 동일시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다”라고 했다.

그 곳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면서 (출25:8-9) 인간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출25:22), 예배를 받으시고 (레1:1-5), 용서하시는 곳이다. (레4:18-20, 17:3-4)<sup>6)</sup> **קדש** 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들은 회막(성막)을 중심하여 머물렀고 전진했으며 싸웠다. (민2:34)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성막이란 죄지은 인간이 사는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점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이다.

### 2-1-1. **קדש** 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קדש** 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인성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게된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간의 형체를 입어 거하실 **קדש** 즉, *ερόν* (=Sanctuary)을 의미한다.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은 그리스도와의 대등점을 지적한다고 보아야 한다.

### 2-1-2. **קדש** 은 신자를 상징한다.<sup>7)</sup>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Tabernacles) 예수님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성막이요 (골2:9.10)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12:13)

### 2-1-3. **קדש** 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sup>8)</sup>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정경을 보여준다.

## 2-2. 14절에 나타난 *ερόν* 과 21절에 나타난 *ναός* 비교

*τὸ ερόν* 의 일반적인 헬라어 용법은 *ναός* (성전)가 통상 신전의

내부를 가리키며, *τεμένος* (성소)는 신전의 경내(境內)를 가리키지만, *τὸ ερόν* 은 위의 두 경우에 포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p>9)</sup> 신약에서 성전을 나타내는 *ερόν* 은 보통 성전의 외각 전물에 지칭된 것이 사실이다.

오늘 본문에서 13절-17절까지는 주님의 성전 청결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ερόν* 은 분명히 전물 자체에 한정된 성전임이 틀림없다. 반면에 19절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λύθατε τὸν ναὸν τοῦτον), 여기서는 14절, 15절에서 사용된 *ερόν* 이 *ναὸν*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ναὸν*의 쓰임을 보자.<sup>10)</sup>

신약에서 *ναός*는 LXX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ναός*, *ερόν*, *αγιον*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sup>11)</sup> *ναός*는 특별히 신약에서 특별한 우위를 차지한 계기는 그것이 영적 성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가는 손으로 지은 성전과 종말론적 공동체의 놀라운 새성전을 대비시키는 반면 마태와 요한은 예수의 육체와 능력을 강조하므로 이 난해한 예수의 말씀이 고발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또 인자의 도래와 성전을 결부시키고 예수께서 메시야 성전의 건축자라고 주장한다. 계시록에서 *ναός*는 자주 역사적 성전을 가리킨다. (계11:1)

제7:15에서는 깨끗하게 성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한다. 또한 3:12에서는 공동체로 나타난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계21:22)

14절 (*ερόν*) → 15절 (*ερόν*) → 16절 : 나의 아버지의 집 (*ο'ikou τοῦ πατρός μου*) → 16절 : 장사의 집 (*ο'ikou ε'μπρορίου*) → 주의 전 (*ο'ikou θου*) → 19절 : 이성전을 헐라 (*λύθατε τὸν ναὸν τοῦτον*) → 20절 : 이성전(헤롯성전) : (*δ ναός ο'υτος*) → 21절 (*τοῦ ναου*)

이와 같이 연결시켜 볼때 14절에서 17절까지의 성전은 *ερόν*으로서의 의미를 연결시키고 있는 반면 19절-21절까지의 성전 지칭은 *ναός*의 의미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20절에서 쓰인 *ο ναός ουτος*는 그 앞에 나오는 *οικοδομήθη*라는 말과 연결시켜 볼때 성전내부로서 지성소로서의 의미보다는 전물자체인

6) Adar. Habershon, *Tabernacle*, kvegel publication, 1977. pp. 9-10.

7) 테오도르 H.에프, 성막과 그리스도, 엠마오 1984. pp. 11-24.

8) Ibid, pp. 11-24.

9) 제프리 W.브라밀리, 신약성서. 신학사전, 요단출판사, 1986, pp. 325-326.

10) Ibid, pp. 513-516

11) 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τερόν*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아야하고 *τερόν*으로 또는 *οὐκος*로 쓰여져야 의미가 통한다. 이렇게 한 요한의 의도는 아마 13-17절과 18-22절과의 *τερόν*과 *ναός*의 대조로서 주님이 참 *ναός*라는 강조적인 대조를 보인 것 같다.

20절의 이구절은 바로 21절 *εἰκεῖνος δὲ ἐλεγεν περὶ τοῦ ταοῦ τοῦ βωματος αὐτοῦ*에서 잘나타나고 있다.

*ναός*는 바로 *Τοῦ Εύηματος αὐτοῦ*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 2-3. *ναός*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부활예표(19절) 및 구원사역(3 니고데모사건)을 중심으로]

분명 13절-17절까지의 *τερόν*은<sup>12)</sup> 돌성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16절에서의 *οὐκον του πατρός μου*와 바로 뒤따라 나오는 *οὐκον εἰμπορέου*와 상이한 대조를 이룸으로써 참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ναός*로서, 참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계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18절에서-22절까지는 부활의 예표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14절에 나오는 성전(*τερόν*)은 성전의 전경내를 지칭한다. 따라서 지성소와 여러 종류의 목적의 뜰들이 다 포함된다.

이 구절에서는 그 뜰중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상행위가 있던 장소는 외록의 뜰이며 이른바 이방인의 뜰이었음이 확실하다. *δῆκον ταπειρόου*은 모든 더럽혀진 성전의 총칭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이미 성소가 아니다. 그것은 돌성전인 것이다. 생명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곳이다.

구약의 *ἅγιον*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곳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곳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림자와 거짓된 것을 내쫓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주님은 채찍으로 제물로 바쳐질 가축들을 성전뜰에서 내쫓았으며 유대인들에게 “이성전을 혈라” (*λυθατε τὸν ναόν τοῦτον*)하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죽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19절에 나오는 *ναό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이시며,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이시며,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이것은 유월절(고로)의 사전때 일어난 것이다.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를 흘림으로서 죄음을 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19절에 나타난 *ναόν*을 혈라하는 것은 그의 죄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 자신의 성소들을 그의 대속의 죄음을으로 새롭게 즉, 주님의 부활로서 모든것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의도일 것이다.

바로 이것은 3장의 니고데모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수 없다는 사건이 연결이 된다. 이 사건은 성전 청결사건 직후에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다. 더럽혀진 성전(*τερόν*)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그리고 거듭난 것과 주님의 성전(*ναός*)이 연관되어지고 있다.

### 3. 결 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고 구약시대에는 *ἅγιον*로서 자신을 보이셨고, 신약시대에는 *ναός*로서 자신이 참성전임을 보여주신것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계시사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 그는 죄 없으신 유월절의 어린양처럼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대속 제물이 되었으며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돌성전을 허시고 자신이 참성전 이심을 계시하신 것은 낡은 제사의식의 폐기선언이었으며, 의식적예배와 영적예배와의 교체였으며, 자신이 참 부활이요, 참 생명이심을 보여주시며 전인류의 구속사역의 시발점을 계시하시는 사건이다.

12) Ibid.